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정직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연말연시 교회행사

교회학교 졸업식

오늘 12개 교회학교 중 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 등 일곱개 교회학교의 졸업식이 교회학교별로 거행된다.

송구영신예배

1997년 1월 1일 0시

'96를 마무리하고 '97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97년 1월1일 0시에 교회당에서 드려진다. 예배는 0시정각에 타종과 함께 소등한 상태로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서는 신년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의 갱신과 국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새해 출발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 뒤 맡은이들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는다.

교우들은 예배시작 30분전에 미리 착석해 지난 날을 생각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1월 1일은 수요일이지만 평소에 드리던 수요일 I·II부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신년예배 · 성찬식

1월 5일(주일) I·II·III부 예배

1997년도 첫 주일인 다음 주일(5일) I·



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새 해,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다짐하며 성찬식을 거행한다.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순결서약식

1월 5일 찬양예배 시에는 1997년도 순결서약식이 있다. 이에 앞서 서약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1996년 12월 31일 오후 8시 3층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97 청지기수련회

1997년도 청지기 수련회가 1월 5일(주일) 헌신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이라"(엡4:11, 12)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지기수련회의 주강사는 임택진 목사(청량리중앙교회 원로목사)이다.

처음이요 나

임목사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새벽기도회시간을 통해 청지기의 바른 자세에 대해 설교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일과 13일에는 이종윤 목사가 설교한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6시 30분까지는 요일별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교구일꾼, 제직, 전도회 임원 등 직분자별 특강도 가진다. 장로수련회는 16일(월) 새벽기도회 후에 가진다.

청지기수련회 주요 일정은 4면에 개제된 표와 같다.

특별제직회와 공동의회

1. 특별제직회

- 때: 1996년 12월 29일(주일) 찬양예배 후
- 의제: ① 1996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1997년도 예산 승인의 건
- 회원: 본교회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

2. 공동의회

- 때: 1997년 1월 5일(주일) III예배 후
- 의제: ① 1996년도 결산 승인의 건
② 1997년도 수입·지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의 건
- 회원: 본교회 세례교인

제 1회 교회갱신 신학심포지엄 개최

1997년 1월 20일 ~ 22일까지 2박 3일간
김치동문화 주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후원

제 1회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신학심포지엄'이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군 오폭면 소재, ☎ 0347-66-4917/8)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화(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목사)이 후원한다. 주제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갱신". 첫날 개회예배에 이은 주제강연은 이종윤목사(서울교회)가 맡는다.

심포지엄 둘째날엔 김상복목사(할렐루야교회, 햇불선교센터 실행위원장)가 '목회자 갱신과 리더십', 이성희목사(연동교회)가 '한국교회 직제와 성장 상관성'이라는 내용의 특강이 있다. 또 첫째날과 둘째날 저녁식사 후에는 박종순목사(충신교회,예장통합총회장)와 김호식목사(예뫼교회)의 강의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엔 새안산감리교회의 김학중 목사가 성장사례를 발표, 생생한 교회성장 체험을 참석자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게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화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들의 모임으로 1994년 3월에 창립되었다. 현재 505명이 참여하는 이 동문화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갱신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고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과 김치 동문화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대상은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며,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화(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5만원.

사진으로 보는 1996년 주요행사



홍해작전

(6. 6. ~ 6. 23)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18일간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 ① 기도의 벽들을 나도 함께 쌓는다 ② 능력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제거한다 ③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라는 세가지 행동강령과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쌓았다. 성도들은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창고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벽들을 쌓는 일에 동참하였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9학기: 3. 25 ~ 6. 3, 제 10학기 9. 2. ~ 11. 4.

제 9학과 10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현대사회와 교회", "복음과 문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각각 10주간 개최되었다.



장로임직식

11. 24.

6월에 가진 공동의회를 거쳐 피택된 이영기·성준경·김영준·김상철 장로 임직식이 교회설립 기념일에 있었다.

선교사 파송

11. 24.

교회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박종상선교사를 중앙아시아로 파송하였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회교국으로 파송되면서 박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후원을 부탁하였다.



필그림예술선교단 "침묵의 노래" 공연

12. 21. 서초구민회관

교회설립 5주년 행사의 하나로 우리교회 필그림 예술선교단이 꾸민 뮤지컬 "침묵의 노래" 공연이 있었다.

복음적 내용과 수준높은 예술성으로 회중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 주었으며 문화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밑에서

“새해 그 순수의 여백 앞에서



나중영 (집사, 바울 제 1선교회 회장)

여느 해와 다를
없이 수많은 역사의 파장
과 미완의 장을 남긴 채 금년도 ‘아듀’
를 고하며 망각의 심연으로 사라져 가
는 세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후 새해라는 전
인미답의 전혀 새로운 의미의 시간을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라는 기회는
시간을 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희망의 기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만 무엇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의 여백같이 마련되었던 그 미지의 새
역사의 장에 다시금 자기만의 지고지
순한 최고의 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는 의미와 기쁨은 당사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저 역시 많은 믿음의 교우들처럼 지
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궁극
의 목표로 삼고 그 길만을 향해 뛰어 왔
듯이 새해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지라도 그 좁고 험한 문의 길을 마다 않
고 쉬임없이 달려가리라 다짐합니다.

3년 전 죽음의 그림자가 병상의 저에
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저는 절박한 심
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렸습니
다. “주여 조금만 더 생명의 시간을 연
장하여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
도를 들어주신 것같이 불품없는 저에
게도 응답하여 주셨고 저는 회생의 기
쁨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박
했던 순간들의 암담한 느낌들을 이젠
더 높은 신앙 안에서 승화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세미하게 부르시는 그
분의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
경각심을 높여 깨닫고자 합니다. 그 분
이 머리되신 서울교회에서 집사로서
일하게 하신 높고 크신 뜻을 깊이 되새
기면서 말합니다.

서울교회의 성장을 위해 작은 주춧
돌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진
솔한 심정입니다.

새해엔 교회의 꿈과 성도의 꿈이 민
족 번영의 꿈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무
지개처럼 세계로 활짝 펼쳐지기만을
오직 소원합니다.

스데반회의 1997년

“이름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하영수 (집사, 스데반회 간사)



스데반회는 주님의 몸 중에 작은 부
분의 지체다.

수도 적고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우리는 이상하리 만큼 끈끈한 작은 인
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
일까?

어느 한 사람 스타도 없고 뛰어난
지도자도 없다. “우리가 교회를 깊어
지고 가자”는 거창한 구호도 없고 “우
리 힘으로 무얼 할 수 있으랴”라는 자
괴감도 없다. 그냥 있는 것이다.

오직 서로 협력하는 것이 있다면 매
주일 찬양예배 후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가끔은 청소도 안
하고 가는 (뺑소니) 이도 있고 또 “우
리만 1년 내내 하느님”라고 불평하는
소리도 아주 가끔은 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년에도 청소를 하
자고 하였다. 집사님이
나 성도 중에는 개별적으
로 용기있게 동참하는 부부도 있지만,
때로 “하고 싶어도 안수집사들의 특
권(?)인것 같아 선뜻 참여 못하겠다”
는 말을 들을 때면 “아뿔사 우리가 혹
시 목에 너무 힘주고 다녔나, ‘스데반
회’ 라는 그 거룩하리만큼 높은 이름
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청소하는 능
력도 제대로 없는 주체들인데...”

‘스데반회’ 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헌신적 수고가 모자라는 것같이 항상
송구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끈끈한
인정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곳은 일
들을 묵묵히 감당하고픈 열망이 있
다.

제 7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

후로감사예배(Closing Worship Service)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국제종교의국립연구소(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오세아니아주 목회자 초청 김치신학세미나

5. 20. ~ 5. 29.

세아니아주와 그 주변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초 로잔중앙위원회의 공인기관이 된 김치(KIMCHI)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96비전2000운동

10. 6. ~ 11. 24

사랑은 이웃에게, 복음은 만민에게”라는 표어로 50일간 기도와 전도, 잃은
찾기 운동을 전개했다. 다니엘 기도, 연속기도회, 노방전도 등 갖가지 기도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어린이 전도를 위한 찬양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10. 23. ~ 10. 24.

희실립 5주년 행사의 일환이었던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는 성도들의 기증품과
교회 운동'으로 결연한 농어촌 자매교회의 농수특산물들이 판매되었다.



지난 한 해동안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역자 일동 -

청지기수련회 일정

구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예배위원	교구일꾼	제직	전도회임원	장로
일자	6일(월)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13일(월)
5:00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강사: 임택진 목사					강사: 이종운 목사	
6:00	바른 교사와 바른교육	찬양대원의 자세	예배위원의 실제	교구일꾼의 실제	봉사자의 자세	전도회임원의 실제	성경적인 장로상
6:30	박귀환 목사	임진태 목사	김명현 목사	이순환 목사	이성득 목사	원 호 목사	이종운 목사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2월 새가족 환영회

* 12월의 새가족 *

조주연 주인용 주상훈 이춘영 양영희
유재준 형인숙 오용근 박숙진 이정남
이정실 이운옥 이성혜 정원호 김영철
김정희 이정자 추하니 추송이 조정흠
노주식 전경옥 노용훈 임병수 윤영로
조은정 천관우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동안 <순례자>를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기도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순례자> 편집위원 일동 -

여러분의 원고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전화: (02) 517-7651 / 교회(김명현 목사)
- 팩스: (02) 516-9641 / <순례자> 편집실
- 천리안ID: pek9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주간성경공부 시상식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올해의 '주간성경공부' 시상식이 있다. 주간성경공부는 성도들이 1년동안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올초부터 주보와 함께 배포되었다. 오늘은 그간 참여한 성도 중 성적이 우수한 200여 명이 수상하게 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등 / 50주 이상 참석자

강정옥 강풍자 고후덕 권귀국 권영자 권임정 금미선
김경희 김계순 김관영 김남숙 김대웅 김동호 김만선
김병숙 김병용 김복녀 김상옥 김쌍금 김양숙 김연정
김영연 김영준 김용구 김은애 김의순 김인순 김인식
김조영 김종자 김중근 김중수 김중복 김진숙 김찬웅
김향권 김현주 니중영 노영숙 박명석 박순봉 박순옥
박순자 박정원 박종민 박창희 박혜선 방계운 배영애
배은희 서희숙 성경숙 성경숙 손병석 송두심 송옥혜
송정희 송명주 송영강 신성미 신순우 신정순 심재을
양숙란 여현진 오승민 왕경래 원복순 유근중 유복달
유숙인 유옥주 유후자 윤복순 윤순탄 윤영신 이기숙
이기원 이기홍 이남복 이민화 이복규 이부자 이상운
이순녀 이신일 이영선 이영숙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현 이은희 이응선 이자현 이점숙 이정옥 이혜순
임상현 임송자 임윤자 임종현 임훈구 임희춘 장낙희
장정화 장효록 전인화 전춘자 정경자 정민보 정숙자
정준순 정현숙 정희순 조명녀 조심원 조상희 조옥섬
조정옥 조춘이 채항식 천병희 최경애 최근자 최난수
최무순 최영순 최 완 최윤정 최일춘 최재춘 최정숙
최정자 최종시 최천금 최혜순 한금희 한명순 함승현
허인숙 현경옥 홍재식 황원희

2등 / 25주 이상 참석자

구명덕 권영복 권영옥 김규희 김명식 김용래 김용호
김원용 김정현 나연신 박금옥 박길하 박동춘 박용균
박정순 백신복 서영희 손재겸 안순이 양태영 여옥기
오충례 유나연 유영광 윤문자 윤봉준 윤영자 이명아
이승민 이정자 임순자 정연택 조봉환 최난주 최양혜
허장자 홍영화 황정임

3등 / 10주 이상 참석자

강영자 객선자 권오철 권오현 권장철 김경아 김광옥
김남순 김명화 김미향 김선미 김선희 김성은 김수정
김숙자 김순희 김연숙 김옥희 김윤자 김은숙 김은정
김인숙 김일용 김정희 김진희 김치순 김향택 나소정
나희주 남미희 노인덕 문분순 박공순 박명자 박미혜
박문옥 박성현 박용현 박원혜 박은미 박청강 박태희
서경숙 서춘식 성기원 송숙영 심귀례 안운정 유경희
유명식 유복환 유영자 윤갑숙 윤요선 이계욱 이계홍
이금자 이맹영 이미순 이봉규 이선영 이순례 이승희
이연실 이영숙 이영자 이영희 이옥순 이용자 이인선
이창구 임경희 장영순 장병무 정옥수 정혜자 조막녀
주화인 진선자 최아영 최영란 최 읍 최용걸 최재규
최정신 최죽희 최형렬 하정자 한정은 한화선 허 림
허 숙 홍영조 홍일성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 앞에서 새해를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2. 연말연시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3.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새로와지도록
4.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